선한싸움에 지면 평생 악한 싸움꾼으로 산다

(딤전2:8~15)

8.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9.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땋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11.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선한싸움에 지면 평생 악한 싸움꾼으로 산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오늘 이 8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두 번에 나누어서 내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8절부터10절 까지는, 남자와 여자의 그 각각의 특성에 따른 권면이 주어지고 있고, 11절부터 15절은 창조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 상호관계가 또한 권면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남자성도와 여자성도들을 권고하고 함께 신앙으로 돌볼 때에, 남자성도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생각의 아웃트라인, 여자성도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어떤 생각의 아웃트라인을 오늘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8절부터10절까지의 내용을 주로 하겠습니다마는, 함께 읽은 마지막 부분 11절과 12절에, 여자가 남자에 순종을 해야 된다, 여자는 그냥 조용할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게 꼭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여성해방 운동가들이 아니더라도, 이 구절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참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차이가 분명합니다.
신체적인 차이에서부터, 여자만이 아기를 가질 수 있고 아기를 낳을 수 있고 하는 그러한 특징적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요즘 세상에 여자 남자의 특성이나, 능력이나, 역할 등에 뚜렷한 구별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남자 중학교 아이들도 바느질을 배우더라고요, 학교에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기술과 가정이라는 게 딱 나뉘어져서, 남자 여자 과목이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은 가정 시간에 배우던 것들을 남자 아이들이 다 배웁니다.

그리고 영국의 마가렛 대처뿐만이 아니라, 현재 유럽의 중심 국가가 독일 아닙니까, 근데 그 독일의 총리가 메르켈 총리라고 여자 분이세요, 뭐 멀리서 찾을 필요 있습니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이북 무인 정찰기가 우리나라에 몇 대가 추락하고 그러는 바람에, 국방에 구멍이 뚫렸다고 많이 걱정들 하고 그러는데, 박 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서들을 모아 놓고 대책 회의를 주관을 하더라고요.
여자 분이, 군대의 무인 정찰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마음대로 떠돌아다니고, '이런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 참 어색하지만 현실입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조용할지니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대할 때, 분명히 그 당시의 문화적 특성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도, 그 당시 교회가 갖는 교회 내의 문화적 특성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세계의 헬라주의적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나서 생활할 때에 전혀 뿌리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을 이유로 해서, 갈등과 다툼이 있었을 수 있고, 또 여자들도 늘 베일을 쓰고 다니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던 그런 문화권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등이 많은 부분 철폐되고,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자유가 주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불상사,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더라도, 언어적으로 표현된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걸 무조건 다 그때의 문화적인 이야기이니까 그냥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돌릴 것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표현된 속에서도 우리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언어로 표현하려고 했던 신앙적 영적 내용이 무엇이냐 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초월해서, 시간적 제한을 초월해서, 오늘날에도 100% 완벽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교회 내에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에, 남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차도 분노와 다툼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고, 여자들은 머리를 땋고 금과 진주와 은으로 장식하는 일에 신경을 아주 깊게 쓰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남자가 다투고 분노하는 일이 그때만의 일입니까?
여자들이 머리를 땋고 금과 진주와 비싼 옷을 입고 다니고 치장하는 것이, 그때만의 일입니까? 요즘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이 도대체 뭐냐? 이러한 열매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문제, 이유가 뭐냐?
그걸 향해서 지금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땋고 비싼 금과 은의 장식품을 달고, 비싼 옷을 입고 치장하려고 할 때, 도대체 신앙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과 그러한 마음과 관심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툼과 분노를 일삼고 있느냐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붙잡아 내면, 오늘 본문은 아주 우리 자신들에게도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 이겁니다.

뭐가 안 될 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과 이어지고 있는 앞에 부분을 쭉 읽어 보면, 한 마디로 선한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선한싸움에서 패배하게 될 때, 그냥 선한싸움만 안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한싸움을 패배하지 않습니까? 선한싸움이 중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악한 싸움꾼이 되어 산다는 겁니다.
분노와 다툼도 싸움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선한 싸움을 제대로 못하니까, 분노와 다툼이라는 악한 싸움으로 삶을 일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를 목회하는 입장인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지만, 선한싸움에서 실패하게 될 때는, 교회 밖의 삶 전체도 다 분노와 다툼으로 일관하게 되고, 쉽게 말해 지옥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들한테는 분노와 다툼으로 나타나지만, 이 분노와 다툼에 해당되는 여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머리를 땋고 금과 진주로 장식하고 비싼 옷을 입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가방 하나 번듯하게 들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활보를 못하는 겁니다.
코를 높여서 성형이라도 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안 될 때.

본문에 의지해서,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우리가 그래도 rough하게 아주 대략적으로 구분을 한 번 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선한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내 마음의 거리를 없애 버리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근데 왜 거리가 생깁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거기서 좋은 것들을 내 마음에 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담게 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에 담은 것들을 현실로 갖고 싶어 하는 소원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바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담은 것이 있어서, 마음에 담은 것을 현실로 이루고 싶은데, 현실로 이루고 싶은 나의 소원이 막혀버릴 때에 분노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의석상에서 분노가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 당회 할 때 싸운다,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운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의견이 안에 있습니다, 내 의견이 안에 있는데 그 의견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만하면 말끝마다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꾸 막히는 거예요, 내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남자들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선한싸움을 포기해버리면, 선한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그러한 삶을 중단할 때 나타나는 일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관철시키려 합니다.
사람들을 뚫고 자기를 실현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반대로, 선한싸움을 중지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나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하려 합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
남자들이 자기를 관철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은, 정복하고 뚫고 나가는 겁니다, 장애를 뚫고 나가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이나 내 속에 있는 소원을 현실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켜 나갑니다.
이게 남자들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들은 자기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시선과 관심들을 자기에게도 끌어당깁니다.
한 마디로 남자들은 바깥으로 자기를 관철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여자들은 밖에 있는 관심들

을 끌어당기고, 매력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인대회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남자도 미스터코리아가 있지만 관심이 없어요.
미인대회가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미인대회에서 일등하면 일약 스타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매력을 어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그래요.
옛날에 후궁들이 다투는 방식이 뭡니까?
어떻게 임금님이 오늘 밤에는 내 처소에 들게 만들 것인가? 이걸 다투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의 싸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쁘게 치장을 하는 겁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이 외향적으로 정복해 들어가고, 자기를 관철하려 하는 것이나, 여자들이 밖에 있는 관심을 자기 안으로 자기를 향해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 사이에 거리가 생기면서, 선한싸움이 중단 될 때 나타나는 악한 싸움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싸움이 지속될 때, 인생에서는 진정한 평화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 이렇게 보면, 얼굴에서 화장이 따로 놀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좀 안됐지요.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열심히 하셨는데 피부와 화장이 겉돕니다.
근데 문제는, 피부와 화장이 겉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쁘게 화장을 했잖아요? 말을 한 마디 툭 하는 걸 보면, 그거 뭐 교양도 없고 어떤 선함도 온유함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과 화장이 안 맞습니다.
피부와 화장이 안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과 화장이 안 맞고 행동과 화장이 안 맞아요.
천하일색으로 예쁘게 화장을 해 놓고, 온갖 정말 거친 행동과 거친 말들이 서슴지 않고 나옵니다, 다 겉도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속이 차지 않아서 그래요 속이, 하나님으로 속이 차지를 않아서.

남자들도 마찬가지에요.
그저~ 분노하고 다투는 일, 이게 역으로 나타나면 비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서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한 자를 보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만해 보이면 다투려고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으로 차지 않아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노와 다툼을 멈춰라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각처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 하십니다.
분노와 다툼은 어떻게 멈춥니까?
분노와 다툼을, 예를 들어 스테반 집사님이 분노와 다툼을 멈추는 모습을 한 번 봐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마인드컨트롤 갖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10번 참다가도 11번째 분노하면, 그건 참은 게 아니라 벼른 것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벼른 거예요, 벼르다 벼르다 11번째 폭발하는 겁니다.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으실 때 보면 정말 억울하고 분노해도 되지 않습니까? 억울해 하고 분노하셔도 돼요.
근데 그분이 뭘 보시냐 하면, 하늘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못보고 있는 하늘을 당신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인자되시는 주님, 승천해 계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의 잘못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분노와 다툼을 멈추고 기도하나는 얘기는, 먼저 거룩한 손을 든다, 이게 인제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자세였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 가지고 손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으로 손대고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손 떼는 거예요.
범인 잡을 때 경찰들이, 경찰이다 손들고 꼼짝 마! 이렇게 얘기 하지 않습니까?
손든다는 게 뭡니까? 활동을 멈추라는 거요, 손 떼라는 겁니다.
무기에서 손 떼고, 네가 도둑질 하려는 일에서 손 떼고, 꼼짝 말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손든다는 건,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꼼짝 마 손들어!' 그리고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사업을 붙잡아서 흑자를 마음에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흑자가 안 나요,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사업이?
그리고 내 사업이 안 되는 게 어떤 거래처 사람들의 행동 때문이라 그러면 거기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삶도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어질 때, 내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분을 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분을 내는 것은 벌써 악한 싸움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싸움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들라는 얘기는, 손으로 어떤 것도 만지지 말라는 거요.
마음으로 마음에 손을 갖다 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거룩한 손이라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없는 상태가, 거룩한 손의 참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손이 됩니까? 십자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인드컨트롤을 해서 아무것도 안 잡겠다, 다 내려놓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게 의미가 없는 공인 줄 알고, 내 스스로에게 깨우쳐 가지고 내려놓는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손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 없어요.
주석가들의 책을 보니까, 거룩한 손이 뭐냐? 거짓이 없는 손, 남을 속여서 빼앗지 않고… 뭐 이런 도덕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를 소위 말해 사기치고 등쳐먹지 않은 그러한 손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습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있어야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그럼 도덕적으로 더럽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포개질 때라야만, 주님의 못 박힌 손에 내 마음의 손이 못 박힐 때라야만, 거룩한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못 박히심에 연합하지 않고는 주님의 피가 나를 적시지 않고는 거룩한 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속 말씀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과 연합해서, 너희 손에도 못을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붙잡지 말고, 바짝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손들어 가지고, 그 손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선한 싸움이 이김으로 승리로 끝났을 때, 그때 나라를 위해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똑같은 일이, 이렇게 똑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도 손을 들고 이 세상일에서 손 떼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벌리는 거룩한 기도를 각 처에서, 예배 처소 때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시장에서도, 그렇게 꼭 남들이 보기에 손들고 진짜 육체적인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손을 들고 기고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그렇게 지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전하고 그렇게 살라고 전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명품 백이 없으면 못 견디는 겁니까?
왜 머리를 그렇게 매주 가서 지지고 볶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까?
예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예쁘게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게 쫓겨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보자 이거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단정한 옷차림과 소박함과 정절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어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지요, 요즘 세상이.
뭐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자 분들이.
그냥 예쁘게 치장해 가지고 나를 예쁘게 봐주는 한 남자 만나서, 그 남자와 평생 한 가정을 꾸리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박 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로 많은 여성들에게는 그게 꿈인데, 요즘 남자들이라는 게 이 TV와 매체가 발달해 가지고, 여자는 다 김태희 같고 전지현 같아야 되는 줄 안다 말입니다.
남자들의 눈을 버려버렸습니다.
남자들 자기 자신이 그럼 이 정재나 무슨 정 우성이 같으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여자는 김태희 같고 전지현 같은 줄 아니까, 그래야 예쁘다 그러니까 전부 성형 바람이 불어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도나도 다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객관적인 기준으로 신체상의 외모가 좀 못생겼더라도, 십자가 주님 붙잡고 선한싸움 싸워서 젊은 아가씨가 하나님과 마음의 간격이 사라져 버리면, 그 아가씨에게서 나오는 매력이, 가히 상상을 불허할 거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눈만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 풍기는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가씨가, 아~무 것도 바라지 않아요.
왜? 충족 됐으니까, 하나님으로 충족 됐으니까.
그 충족됨에서부터 나오는 자유와, 충족됨에서 나오는 여유와, 아가씨뿐이겠습니까? 아줌마도 마찬가지이고 할머니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으로 생기는 만족감에서 나오는 그 여유로움으로부터 어떤 매력과 어떤 아름다움이 발산 될지, 그런 여자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렇지 않냐고요?
그건 뭐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매력이 그런데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속이 차지 않은 채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을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자의 삶도 지옥인 거예요.
아침마다 화장이 아니라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해야 되지요, 저녁때면 또 피부가 또 아침에 그대로 잠을 잤다가는 피부가 다 뒤집어진다고 말을 하더군요, 피부가 다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걸 또 다 지워야 됩니다.
애써서 분장하고 애써서 지우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화장이 먹히지 않는다 그러고, 이거 언제까지 불평불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선한싸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거 이기지 못하면 악한 싸움꾼이 돼 가지고, 이 세상 것 속에 집어넣고, 그것에 대한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관철시키든 끌어당기든지 하느라고…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거기에서 분노와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여자가 분노와 다툼의 방식이 뭡니까?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하는 거, 꾸미는 거, 명품으로 치장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화장품을 골라도 무조건 비싼 거, 한 번 바르면 뭐 얼굴이 팽팽해집니다, 이런 광고 듣고 사

지 말고, 일단은 선한싸움부터 해 놓고 화장품도 고르자 이거에요.
그러면, 적당한 화장품 고르게 되고, 적당한 옷을 골라…
소박하게 입어라, 어느 수준이 소박한 겁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이 건희 씨 부인에게 소박함이라는 것은, 한 벌에 100만 원짜리인데, 150만원 받는 월급쟁이한테 100만 원짜리는 이게 소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기준으로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으로 채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도대체 사도바울이 단정한 옷차림, 소박함과 정절로서 치장하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로 아무리 연구해 봐야 기준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선한싸움 해놓고, 이기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마음을 잡아끄는 이 세상의 좋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로 죽으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꾼으로만 남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선한싸움에서 져서 악한 싸움꾼으로 전락해서, 평생을 분노와 다툼 속에서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지옥의 삶이 다시는 내게서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